



핵연료 기술의 완전 자립과 경쟁력 배가

한 국원전연료(주)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초 계획한 생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였고, 또 회사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사업 이관을 지난 연말에 종결지었다.

핵연료 설계 사업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 업무와 이 부분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이전됨으로써, 한국원전연료(주)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실 상부한 핵연료 전문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는 대외적으로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발전 설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는 해이다.

비록 일부분에 한정된 원자력 시장의 개방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 핵연료 부문의 시장 개방도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이 아직까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부문에서의 국내 여건으로 보아 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 개방이 언제

되더라도 이에 맞설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제1차적인 목표를 둘 것이며, 또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한국원전연료(주)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 한국원전연료(주)는 지난 연말 완료된 핵연료 사업 이관 협약에 따라 경수로 핵연료 설계와 중수로 핵연료 제조 업무에 종사하던 많은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한국원전연료(주)는 웨스팅하우스형 원자로에 필요한 교체 노심 핵연료 설계를 수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ABB-CE 기술을 이용한 한국형 경수로의 원자로심 설계까지도 수행하게 되어, 핵연료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또한 94년부터 추진해 온 신규 공장이 올해 안에 준공됨으로써 경수로

핵연료 제조는 물론 중수로 핵연료 제조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핵연료의 경제성과 생산 능력면에서도 세계의 기업과 견주어 손색이 없게 된다.

이렇게 핵연료 설계 및 제조 기술의 경험과 인적 자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제부터는 시야를 세계로 넓혀 세계 속의 한국원전연료(주)를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원전연료(주)는 한 해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회사의 비전이자 목표인 「세계적인 핵연료 주기 회사」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핵연료 설계·제조 기술의 완전 자립과 국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핵연료 설계·제조의 국제 경쟁력 확보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품은 존재 의미가 상실된다.

한국원전연료(주)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경쟁 상대 없이 보호되어

왔으나, 조만간에 세계적인 핵연료 회사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핵연료 설계는 그동안 한국원자력 연구소와 우리 회사가 나누어 수행해 왔고, 핵연료 제조 업무도 중수로 핵연료 제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사업 이관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두 우리 회사가 수행하게 된다.

그런만큼 사업 이관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핵연료의 설계 및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핵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핵연료 제품과 서비스 품질 또한 매우 중요한 만큼, 설계에서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규공장의 차질없는 준공과 가동

올해 한국원전연료(주)는 연간 경수로 핵연료 200MTU, 중수로 핵연료 400MTU 시설의 신규 공장을 완공,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신규 공장의 완공은 우리 회사의 경쟁력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역무이다.

전체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금년 하반기중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한치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연료봉 탐상 시험 장비

는 것은 물론, 완공에 따른 후속 업무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 목표의 달성과 생산성 향상

올해 한국원전연료(주)는 생산 목표를 집합체 583다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는 전년도의 생산 실적 444다발과 비교할 때 139다발이 증가된 양이지만, 최선을 다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원자력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분석해보면 선진 핵연료 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생산성의 향상은 곧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설계·제조·경영 등 각 부문 모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노사의 화합

한국원전연료(주)가 지금까지만큼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둔 뒤에는 무엇보다

노사간의 화합과 단결을 들 수 있다.

올해는 우리 회사의 역사에 있어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한 해이다.

아직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회사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고, 우리의 의지 또한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불황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전통을 바탕으로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기존 직원과 이전 인력이 하루속히 하나로 융화해서 모두가 한국원전연료(주)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